

인천 아트플랫폼

-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과거



신 승 우 | 이화여대 건설경영연구실 연구원

인천의 해안동, 침체된 도시 공간이 예술 커뮤니티에 의해 다시 부활한다. 바로 인천의 아트플랫폼¹⁾이다. 2009년 여름, 아트플랫폼 개관에 앞서 열린 첫 국제 행사인 ‘인천여성미술비엔나레’를 참관했다. 그때 그 거리는 오래된 건축물의 안쪽에 설치미술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하면서도 친숙한 분위기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교 공간이었던 1901년 신축된 제물포구락

부, 대한민국 제1호 엘리베이터가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 한중문화관, 인천역사자료관 등 구도심 자유공원 일대의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가 펼쳐지고 있었다.

1988년 조성된 자유공원 일대의 전시 장소들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구도심의 균형 발전과 도시 브랜드 가치의 제고 등을 통해 인천의 전체적인 도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고자 문화 공간으로 다시 조성된 지역이다. 이 중 대

1) 사진은 인천아트플랫폼 공식 사이트(<http://www.inartplatform.kr>) 자료를 활용함.

건축물 개요		리모델링 전·후 비교	
건설 목적	인천광역시 구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해안동의 개항기 근대 건축물 및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함. (재)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인천 아트플랫폼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창작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예술 창작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담당		
위치	중구 해안동 1가 일원 (10-1번지 외 33필지)	대한통운창고(1948).	전시장(2009).
건축주	인천광역시		
건축가	황순우	구 일본우선주식회사(1988).	자료관 아카이브(2009).
규모	2단지, 13개동, 지상1층~4층, 지하 1층 대지 면적 : 8,450.3㎡ 건축 면적 : 4,165.06㎡ 연면적 : 5,593.43㎡		

한국 개항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대한통운 창고 건물, 1888년 건축된 구(舊)일본우선주식회사(등록 문화재 248호) 건물 등은 전시 공간으로, 자료관으로, 공방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아트플랫폼으로 재탄생되었다. 1930~40년대에 지어진 근대사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아트플랫폼은 특유의 지역색을 살린 친근함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상품이라는 신선함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인천의 도시재생사업

근대화의 물결이 밀물과 썰물처럼 밀려 들어왔다 빠져나간 듯한 해안동 일대가 예술문화 커뮤니티로 거듭나게 된 것은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된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이룬 결과다. 인천광역시가 사업 주체로 나서고 개항장의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공공 시설인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아트플랫폼은 도시재생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재개발 사업은 쇠퇴한 공간을 재개발한다는 명분 아래 보존보다는 개발업자의 사적 이윤을 만족시키고자 무조건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을 가져오곤 했다. 이에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기존 건축물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도시 공간을 재생하는 것이 신축이나 증축에 의한 개발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물량 위주의 재개발보다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여긴 것이다.

인천에서도 개발 위주의 난개발에 제동을 걸고, 도시 재생이라는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방법이 대두되었다. 먼저, 인천의 공간적인 특성과 구도심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었다. 구도심은 일차적으로 근대 개항 이후 일제 치하의 근대 건축물과 가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었으며, 한때 많은 인

인류 역사와 함께한 건설 상품 100선 77

구가 거주하던 인천의 중심지였다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인천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많은 사람들이 인천의 모습을 구도심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곳은 인천시민의 ‘고향’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구도심 일대는 점차 쇠락하고 변화하기 시작한다. 항만 기능이 약화되고 전통 제조업이 쇠락하면서 인천 특유의 선형적인 도시 발전의 종착점이자 한 축이던 개항장 일대가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 인천의 중심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도심이 갖고 있던 힘이 점차 외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해양 도시로서 그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고, 도시 공간에서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되어 시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스터플랜의 컨셉은 구도심의 지역적 특색과 장소성을 살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경제적인 회복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구도심의 역사적인 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 건축의 어떤 측면이 보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고려되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리노베이션 수행시 현재의 요구 사항에 기존 건물이 가진 맥락을 고려한 결과는 보존 위주의 성향을 보이거나 극단적인 복원으로 나타난다. 특히, 시대적인 상황과 정신에 따라 현재에도 강한 역사성과 장소성을 가지는 역사적인 리노베이션의 경우 기존 건축물이 가진 맥락이 상당히 중요한 리노베이션의 개념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아트플랫폼 조성에서도 그런 고민의 과정이 있었고, 실제 개항장의 모습과 근대 초기 도시계획을 통해 조성된 시



아트플랫폼의 1층 건축 평면도

가지 모습이 아직 남아 있는 이곳을 보존하고 가치를 재부여하는 도시 재생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었다.

재생의 키워드 : 예술 문화 교류

그렇다면 왜 재생의 키워드로서 예술 문화 교류 콘텐츠가 선택된 것일까? 아트플랫폼은 단순히 건축물을 리노베이션한 결과물이 아니라 난개발을 지양하는 도시 재생의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아트플랫폼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태는 예술 문화 교류와 지역색이 조화를 이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와 아이디어가 결합된 기획 상품이다.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행위가 도시 재생이라면, 탈산업화 시대에 퇴락한 구도심이 다시 활력을 되찾게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강력한 콘텐츠는 물리적,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공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을 것이다. 자유로운 상상놀이와 휴식을 통해 교류와 공유가 이루어지고 고향에 대한 향수, 현재의 활력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섬세게 지원하는 창작과 향유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그려졌을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창작 공간과 전시 공간, 그리고 교육 공간이 어우러지고,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문화적, 경제적 활성화를 기대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청화하면서 동시에 예술 문화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작용했을 것이다.

공간 구성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수립된 아트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공간이 구성되었다. 첫째, 물리적인 공간은 창작, 유통, 향유 등 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이런 문화 예술적 요소들이 도시 공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작가들의 작업이 교육, 전시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교류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내·외 작가들이 특정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정 기간 고정된 작업실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국제 문화 교류의 장을 구비하는 것이다.

완성된 아트플랫폼의 북쪽 공간은 작업을 위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있으며, 남쪽 공간은 개방되어 길가에서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이끌고 있다. 한편, 내부 공간의 마감과 세부 디자인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철재와 벽돌 위주의 재료를 사용하여 내부 이미지 변화를 최소화하고 있다. 아트플랫폼에서는 옛것과 새것이 기존 경관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절묘하게 만나고 있다.

아트플랫폼 조성의 대전제는 이곳을 도시 재생의 주요 거점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당초 예술 문화 공간을 통한 재생 활동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트플랫폼이 참고한 구도심지 문화 공간 활용 사례들은 세계적인 미술관과 스튜디오들이다. 침체된 산업 도시를 문화 예술의 도시로 변모시킨 스페인의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기능이 중지된 화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정체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던 강변 일대를 현대 미술의 메카로 전환시킨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대표적이다. 또한, 스튜디오와 최첨단 현대 미술의 만남을 모색한 프랑스 그르노블의 마가쟁은 복합 문화 공간의 활력을 통해 지역 자체의 서민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면서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역을 개발한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된 특징은 도시 재생을 이루려는 사업 주체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궈낸 문화 공간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형성이 경제의 회생과 복구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앞선 사례들에 비해 인천의 아트플랫폼은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규모와 수익 면에서의 단편적인 비교보다는 운영 시스템과 기부 문화 등 그 기저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함께 필요하다. 아직까지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을 보유한 곳이 국내·외적으로 드물고 국제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에서 국제 문화 교류의 한 모형을 제시하며 역사성과 장소성을 부각시킨 것은 도시 재생 역사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향후 아트플랫폼이란 상품은 역사를 보존하고 가치를 재생하는 행위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지속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단초가 될 것이며, 선행 사례의 장점을 취하며 진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아트플랫폼의 건축가 황순우 씨는 변화와 성장 속에서도 도시의 맥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2년 현재, 개화기 적벽돌 창고가 늘어선 해안동 사잇길로 소통과 공유의 물결이 희망차게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곳곳에 지역색을 향유하며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제2, 제3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CERIK